

2026. 4. 30.(목)
Vol. 42

우리 팀 소개 ⑪ 축로팀

“인천공장 용강을 안전하게 이송하다”

Q. 축로팀은 어떤 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축로팀 유기성 팀장입니다. 축로팀은 래들A반, 래들B반, 턴디쉬반, 기중기반, 해체보수반 등 5개의 반 총 6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로팀은 용강을 담는데 사용되는 각종 설비(전기로, 래들, 턴디쉬 등)를 전문적으로 시공 및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내화물 시공 방법과 축로 공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공장 현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작은 역할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동료들이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로팀은 '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함께 성장하는 축로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성민 기장,
유기성 팀장



Q. 축로팀 현장 최고 리더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한성민 기장** : 축로팀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장의 '진정한 강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용강을 담는 래들, 턴디쉬, 전기로 등의 내벽을 쌓고 보수하는 일은, 강인한 체력은 물론 아주 섬세한 기술까지 요구되는 전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열기가 다 가지지 않은 전기로 내부에서 방염복에 의지해 사투를 벌이다 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인천공장의 생산도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공장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외칩니다. “인천공장의 핵심은 우리 축로팀이다!”

용강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 축로팀의 Main 「래들반」을 소개합니다.

- **남철희 계장 (래들 A반)** : 인천공장의 용강 이송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반입니다. 설비와 사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인천 공장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고, 스스로의 기술과 역할에 대해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천공장의 심장을 지탱한다는 책임감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경쟁력을 굳건히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호 주임 (래들 A반)** : 우리 래들반은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용강이라는 피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혈관을 만들고 보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재공장은 인천공장에서도 가장 작은 공장 중 하나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로가 멈추면 제강공장이 멈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윤주영 사원, 최성용 사원, 유환일 주임, 김영규 사원, 남진희 주임, 이종원 계장

- **이종원 계장 (래들 B반)** : 용강의 열기가 채 가지지 않은 전기로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매일같이 무거운 연와를 쌓아 올리는 일은 누구나 엄두를 내기 힘든 고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신입사원이 최소 2년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익혀야 비로소 축로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업무를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옆에 있는 동료들 덕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끈끈한 분위기가 우리 래들 B반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자랑입니다.
- **남진희 주임 (래들 B반)** : 래들반은 뜨겁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1,580℃의 용강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작업에 나섭니다. 힘든 작업 여건이지만 팀원들과의 두터운 동료애를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래들반 전 인원이 하나가 되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김민호 주임, 남철희 계장, 김철규 주임, 임수빈 사원, 남훈희 사원

축로팀에 한마디 한다면?

- **이성우 책임매니저** : 작지만 강한 팀, 우리 축로팀의 이야기가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열호 주임 (래들 A반)** : 래들반의 멈추지 않는 변화, 끝없는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철규 주임 (래들 A반)** : 서로를 믿는 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동료와 함께 하겠습니다.
- **임수인 주임 (래들 B반)** :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항상 좋은 팀 축로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환일 주임 (래들 B반)** : 오늘도 우리는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김철규 주임, 정대영 사원, 임수인 주임, 이성우 책임매니저, 이열호 주임, 조경용 사원

이번호 '봄' 테마 추천도서 인사지원팀 권기혁님의 추천도서 이야기



봄비 아래 피는 벚꽃

에세이 | 포레스트 웰 공동 작가

포레스트 웰의 여러 작가들이 쓴 봄비, 벚꽃과 관련된 에세이들이 수록되어있다. 봄비와 벚꽃에 관련된 에세이들을 읽으며 과거의 추억, 미래의 기대 등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위로와 공감 등 마음의 안식을 주는 책이다.

Q. 도서 추천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지원팀 권기혁 매니저입니다. '봄'이라는 주제에 이 책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잡생각이 많을 때, 감성에 잠기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가끔 시를 읽습니다. 이 책은 '봄비'와 '벚꽃'을 주제로 하고 있어 따뜻한 위로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추억, 부모님과의 어렸을 적 일화, 2026년도 새 출발에 대한 기대 등 설레고 따뜻한 내용들 시가 많습니다. 어렸을 적 순수했던 모습의 "나"로 돌아가 설렘과 기대라는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Q.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기억에 남는 말은 "어김없이 봄은 온다"입니다. 이 책의 161쪽에 나오는 안세진 작가의 시 구절입니다. 아무리 젖고, 흔들리고, 느려도 조용히 현재를 지내다 보면 다시 봄이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저 역시 서툰고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Q.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 책은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 감동 등 최근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3월을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월 초에는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책을 읽으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기고 공감하는 시간이 이어지며, 그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권기혁 매니저처럼, 전자도서관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전자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가족' 추천도서 코너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한 권의 책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5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천도서 코너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관계를 다룬 책이라면 좋아요. 자유롭게 추천해 주세요. 책 한 권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추천도서 '테마'는?

가족

• 참여 방법

- 1 전자도서관에서 '테마와 어울리는 책' 읽기
- 2 책 추천 이유와 감상평 작성하기 (*자유양식)
- 3 메일로 보내기 (hhk7631@hyundai-isc.com)

• 참여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까지

• 시상

심사 후 우수 추천작 선정 ▶ 선정자 개별 안내 및 사보 공지 ▶ 소정의 선물 증정 (EX. 텀블러)

재해 예방을 선도하는 안전수칙 준수 우수자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안전한 작업,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달 안전수칙 준수 우수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3/4
대형압연공장

• 대형압연팀 : 송일근, 황의준 사원
중량물 운반 시 안전거리 유지 및 S자 갈고리 사용



3/27
중형압연공장

• 중형압연팀 : 탁광식, 남정현 사원
교정물 운반 시 작업자 간 수신호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양호



4/10
철근압연공장

• 대형압연팀 : 박병수 계장
가동설비 진입 전 설비 정지 및 조작실 출입금지 조치 / 경광등 작동 / 1등급 출입금지구역 잠금 조치



3월 정기안전교육 실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 3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현장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행하는 안전’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강사의 이론 교육을 통해 비상 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등을 이해한 뒤, 교보 재를 통해 **교육생 전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가슴압박의 깊이와 속도 등을 이해하고 반복 훈련을 해봄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했습니다.

AED 실습, 가장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다

이번 교육에서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AED(자동 심장충격기) 실습이었습니다. 실제 사용 경험이 없던 교육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직접 기기를 작동해보며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위치 확인, 음성 안내에 따른 절차 수행까지 전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교육생들은 “막연하게 낯설게 느껴졌던 AED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주변 가족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실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AED는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닌, 누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응급장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완성한 대응력

응급상황 시나리오 기반으로 환자 발견부터 신고, 심폐소생술 시행, AED 사용까지 전 과정을 조 단위로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할뿐 아니라 협업의 중요성, 초기 골든타임 확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단순한 체험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한 걸음의 차이, 발에서 시작되는 안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 요소 속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라도 한 번의 부주의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 수칙

보행 안전은 단순히 “조심해서 걷자”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차량·지면·장비가 동시에 얹힌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 1 지정된 보행통로만 이용합니다.
- 2 차량 및 장비의 동선과 겹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멈춰 지적확인 후 이동합니다.
- 3 보행 중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 4 이동 구간의 바닥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안전화 착용

보행 안전은 안전화 착용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안전화는 미끄럼 방지, 발가락 보호, 충격 완화 기능을 통해 보행 중 사고를 줄여줍니다.

다만, **안전화는 제대로 착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느슨한 안전화는 미끄러짐, 낙하·충격, 접질림 등을 막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화 착용 방법

- 1 안전화를 신은 후 뒤꿈치를 **뒤축에 밀착** (뒤축 꺾음 등 변형금지)
- 2 측면 지퍼를 올리고 **벨크로(찍찍이)를 체결**
- 3 발등에서 발목까지 고정되도록 끈을 조인 후 **이중매듭 실시**

* 끈 조이기 : 느슨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



안전화 점검 방법

- 1 측면 지퍼 및 벨크로 체결 상태 확인
 - 2 뒤꿈치 밀착도 확인 : 뒤축을 고정 후 뒤꿈치가 들리는지 여부
 - 3 끈 조임 상태 확인 : 발목과 설포 사이 검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
- * 검지손가락이 들어간 후 공간 남음 (느슨함) 검지손가락 들어가지 않음 (과도함)



● Safety Quiz, 안전 지식 한입 ●

Q. 회사에서 운영 중인 안전 포상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안전문화 개선 포상 제도
- ② 안전신문고/아차사고 포상 제도
- ③ 안전분임조 활동 우수 포상 제도
- ④ 안전수칙 준수 우수자 포상 제도

- **응모방법** : 정답/소속부서/사번/직책/이름/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곳** : bin9506@hyundai-isc.com (황원빈 매니저)
- **포상지급** : 추첨을 통하여 총 20명 5,000포인트/인 마일리지 지급
- **응모기간** : 2026년 5월 8일 (금) 까지

*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41호 'Safety Quiz' 정답 : AED
당첨을 축하합니다!

No	팀명	이름	No	팀명	이름
1	제강팀	전현배	11	물류지원팀	박지훈
2	중형압연팀	조상필	12	물류지원팀	신진광
3	중형압연팀	최용우	13	물류지원팀	전경희
4	기계정비팀	김태훈	14	물류지원팀	김준오
5	기계정비팀	이준영	15	물류지원팀	김경섭(****154)
6	기계정비팀	염상호	16	물류지원팀	이헌상
7	기계정비팀	양재민	17	물류지원팀	허훈
8	물류지원팀	문점수	18	물류지원팀	김병수
9	물류지원팀	윤정환	19	축로팀	김천중
10	물류지원팀	오윤식	20	축로팀	손명환